

『인간과 기계-사이보그와 사이버네틱스』



김 성 곤
서울대교수 영문학

인공두뇌학(Cybernetics)과 생체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 영화들은 인간과 기계의 합성이 만들어내는 '사이보그'의 문제점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터미네이터 II」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사이보그 캡」, 「유니버설 솔저」, 「로보캡」 같은 영화들은 모두 '사이보그'를 통해 인간과 기계의 조화와 갈등을 성찰하고 있는 영화들이다. 예컨대 「터미네이터 II」에서는 합성 액체금속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기계인 T-1000과, 속은 기계지만 겉은 살아있는 인간의 근육과 피부로 만들어진 인조인간 101이 등장하는데, 전자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그리고 후자는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그와 같은 설정의 배경에는, 순수한 기계보다는 그래도 인간과 기계가 혼합된 존재가 더 이상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사이보그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주의, 그리고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오용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깔려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터미네이터 II」에 등장하는 두명의 사이보그들은 결국 기계였지 인간은 아니었다. 문제는 진짜 인간과 기계가 결합해 만들어내는 인공두뇌학적/생체공학적 사이보그들이었다. 영화 「사이보그 캡」이나 「유니버설 솔저」나 「로보캡」에

등장하는 사이보그들은 모두 대형사고를 당해 이미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기계를 혼합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한 사이보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그것들이 인간인가 아니면 기계인가 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으며, 다만 통제자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램된 대로만 행동하도록 되어있는 기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두뇌 속에는 과거 인간시절의 기억의 편린들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어, 마치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필름처럼 순간적으로 그들의 뇌리를 스쳐간다. 잠시나마 그들은 옛시절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느낀다. 그리고는 현재의 자신이 누구인지 잠시 혼란과 갈등을 느낀다. 아직 인간적 특성을 완전히 잃지않고 있는 그들의 그와 같은 속성은, 때로 프로그램된 명령이나 통제자의 비인간적 지시와 상충되기도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미한 인간성의 흔적은, 놀랍게도 프로그램이나 통제자의 지시보다 우선(override)해, 그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을 하게 한다. 그들을 만든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자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현상은 과학적으로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이보그 캅」에서는, 악한 과학자의 이지트에 잠입한 경찰관이 오히려 악한에게 붙잡혀 살해당한 후, 사이보그로 만들어진다. 그는 그 악한의 명령에 따르도록 프로그램 된 기계인간이 된다. 어느날 실종된 그를 찾아 그의 형이 그곳

에 찾아온다. 그는 악한의 지시대로 형을 죽이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에게는 과거의 기억의 편린들과 인간성의 흔적이 간헐적으로 되살아난다. 그는 차마 형을 죽이지 못하고 그대신 악한 과학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 과학적인 추론만을 갖고는, 단지 기계일 뿐인 사이보그의 그러한 인간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과학적 논리와 이성적 법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 사이보그들의 그러한 심리적 변화 역시, 기계와 인간의 대결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통쾌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니버설 솔저」에서도 역시 월남전에서 전사한 특수부대요원들로 만들어진 사이보그 부대가 등장한다. 그들 역시 철저하게 통제/감시 당하고 있으며, 오직 통제자의 지시에만 따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인간성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한 사이보그(장 끌로드 반담 扮)가 명령과 통제에 불응해 그곳을 탈출한다. 통제자들은 인간성이 철저하게 말살된 또 다른 사이보그(돌프 룬트그렌 扮)를 파견해 그를 파괴하려고 한다. 원래 특수부대 시절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앙숙이었고, 전자는 인간적이었던 반면, 후자는 비인간적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설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결국 아직도 인간성이 남아있는 사이보그와 철저하게 기계가 되어 버린 사이보그 사이의 투쟁과 갈등을 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이보그 영화의 정수는, 세편의 영화로 제작되었고, 그 이후 텔레비전 시리즈로도 만들어진 「로보캅」일 것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유능한 경찰관

머피는 어느날 마약거래상들을 체포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당국은 그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남아있는 그의 시신을 기계와 합성해 사이보그로 만든다. 이제 그는 프로그램된 대로만 행동하는 영원히 죽지않는 기계로 다시 태어나게된 것이다.

로보캅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다. 과학자들과 당국자들은 물론 그들 기계로만 취급한다. 그러나 그의 파트너인 여자경찰관 루이스에게 있어서 머피는 예전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머피는 루이스와의 우정을 통해 점차 인간적인 면을 회복한다. 그의 기억 속에서 간혹 예전 아내와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한 현상은 특히 그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을 볼 때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 머피는 점차 인간에 가까워져간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의 파트너 루이스와 담당 여과학자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소외된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또다른 소외계층인 여자들이라는 사실(3편에서 흑인여자와 소녀가 추가된다)는 대단히 시사적이다.

제2편에서 로보캅 머피는 순찰 중, 예전의 자기 집 근처에 가서 자신의 옛 아내와 아이를 몰래 바라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옛 아내가 자기를 알아보겠느냐고 물을 때, 아내의 앞날을 위해 고개를 흔든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인간 보다도 덜 이기적이고 더 희생적인 기계로서 제시된다. 그렇다면 속은 인간 이면서도 겉으로는 기계인 척하고 살고 있는 그는, 속은 온통 기계이면서도 겉만 인간인 척하며 살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 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 영화에서 「로보캅」머피는 인간과 기계의 가장 이상적인 조화의 한 예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순수한 기계로만 만들어진 또 다른 로보캅 모델은 실패작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2편에 처음 등장하는 그 기계모델 로보캅은 시범을 보이는 현장에서 작동불량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쏘아 죽인다. 기계에게는 인간의 분별력이 없다. 그리고 기계는 때로 오작동을 하거나 고장이 난다. 그러나 인간과 기계가 조화된 로보캅에게는 그러한 위험성이 없다. 그에게는 인간의 분별력과 인식력 뿐만 아니라, 기계의 힘과 정확함까지 있다. 그러므로 로보캅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경찰관인 것이다.

로보캅이 언제나 강철헬멧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는 것은, 그의 바로 그러한 속성-즉 반은 인간이고 반은 기계인 속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제3편에서도 기계로만 된 로보캅은 여전히 어린 소녀의 컴퓨터에 의해 조종되는 불량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3편에는 또 사무라이의 모습과 복장을 한 또 하나의 사이보그 모델이 등장한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기계로만 되어있는 그 사무라이 사이보그 역시 파괴적이고 사악한, 그러면서도 어린 소녀의 컴퓨터에 의해서 맥없이 조정되다가 파괴되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존재는, 바로 인간과 기계가 적절히 조화된 로보캅 머피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제대로 이용하기만 한다면 기계는 인간의 복지를 위해 꼭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라는 것,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

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 「로보캅」에서 기계인간인 머피보다 오히려 더 비인간적이고 더 기계적인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를 사이보그로 만들고 조종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들이다.

「로보 캅」의 배경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모여있는 디트로이트이다. 디트로이트는 일본산 자동차로 인한 피해 때문에,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가장 좋지않은 곳이고, 따라서 단순한 형태의 애국심이 가장 강한 곳이다. 이 영화에서도 디트로이트는 일본인 기업체의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으며, 디트로이트 경찰 역시 일본기업의 조종을 받는 '안보개념(security concept)'이라고 불리는 보안군의 통제를 받는다. 그들은 또 도시계획을 빙자해 디트로이트 시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도 한다. 로보캅은 디트로이트 경찰관 시민들의 편을 들어 일본기업과 보안군을 상대로 싸움을 벌임으로써 미국인들의 대일본 감정과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시켜준다. 이 경우, 일본기업은 물론 철저히 기계화된 비인간적 테크놀로지의 상징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로보캅은 바로 그 기계와 싸워서 이기는 기계와 인간의 혼합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한 설정은 물론 다소간 유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캅」은 오늘날 점점 기계화되어가고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엄숙한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사이버네틱스 연구로 유명한 MIT교수 노버트 위너(Nobert Wiener)는 1950년에 출간한 「인간의 인간 이용:인공두뇌학

과 사회」라는 책에서, 기계문명 속에서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파멸되어 가는 혹성에서 침몰 중에 있는 배를 탄 승객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결국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야만 한다. 우리는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호의 주제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과학자의 인간창조'입니다)

